

2013
03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중재위원회, 통일교육원 및
서울대학교 로스쿨과 MOU 체결

인터뷰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경기중재부 중재위원)

언론중재위원회 NEWS

언론 사람

제153호



언론중재위원회

Contents

- 03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중재위원회, 통일교육원 및
서울대학교 로스쿨과 MOU 체결
- 04 **인터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세계적인 추세
-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경기중재부 중재위원)
- 06 **위원동정**
- 07 **위원회 소식**
- 08 **나의 언론분쟁 경험기**
새 희망을 꿈꾸며...
- 09 **판례토크**
독이 든 열매를 약으로 쓰는 법
- 10 **인문학 산책**
로맹의 '느린 예감'을 만든 산책의 힘
- 11 **신 동의보감 / 소화성 궤양**
위를 다스립시다
- 12 **위원단상**
그러려니
- 13 **마이 힐링푸드 테라피**
솔지의 추억
- 14 **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언론 사람 | 2013. 03

발행인 권 성 편집인 오광건 발행일 2013년 3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홈페이지 www.pac.or.kr 편집 (주)잉카커뮤니케이션즈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식약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언론사, 대학, 기업, 공공관 등을 대상으로
언론보도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통일교육원 및 서울대학교 로스쿨과 MOU 체결

●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지난 1월 1일 교육본부를 확대·재편한 데 이어, 2월 들어 두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 위원회는 2월 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일교육원(원장 전경만)과 양 기관의 교육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은 “위원회는 교육을 통해 각종 분쟁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방법인 ADR을 사회 다양한 분야에 소개하고 그 장점을 전파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교육원의 오랜 교육경험과 노하우가 위원회 ADR 교육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육원 전경만 원장은 “언론인 대상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교육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저변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위원회는 2월 25일 오후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정상조)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실무수습 교육제공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권성 위원장은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생은 향후 ADR제도를 이끌어갈 가장 적합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상조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로스쿨 학생들이 더욱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실무학습의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제도 관련 실무수습 및 ADR전문가과정을 운영하고 양 기관 공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률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왼쪽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오광건 사무총장, 권성 위원장, 통일교육원 전경만 원장, 이무일 교수부장



▲ 왼쪽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오광건 사무총장, 권성 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상조 원장, 조홍식 교무부원장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세계적인 추세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경기중재부 중재위원)

- (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현)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감사
- (현)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현)수원 FC 이사
- (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부 운영위원(부회장)
- (현)인구보건복지협회 운영위원
- 제18,19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감사



회원들의 첫 직선제로 치뤄져 대선만큼 열기가 뜨거웠던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위철환 변호사. 2009년부터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재 감사로 재임 중인 경기중재부 위철환 위원을 만났다.

● ● 의미있는 선거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제시하신 공약과 현재 구상하고 있는 각종 사안들 중, 이것만은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과제가 있는지요?

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사법시험 존치 혹은 예비시험제 도입입니다. 현재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고, 법사위 위원장도 예비시험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 자체가 얼마나 성공적인 제도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할 수 없고(제도가 운영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한번 만들어진 제도를 함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존치와 사법시험 존치를 배타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사법시험 존치가 어렵다면 예비시험제도라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점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고 그 당위성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칭 '변호사 공선제도(변호사 강제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민사 합의부 사건 이상에서는 변호사가 반드시 소송에 참여하도록 하되, 돈이 없는 국민의 경우에는 현행의 법률구조 제도를 개선하여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가 너무 많아져서 청년변호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편, 여전히 돈이 없어서 법률조력을 못 받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법원 입장에서 늘어나는 나 홀로 소송 때문에 절차 진행 자체가 힘들어지고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변론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민사 합의부 사건 이상에서 소송 대리인으로 반드시 변호사들이 소송에 참여하도록 하되,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대한변호사협회와 국가 재원의 도움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위원회는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무료변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각 지역에도 이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요?

언론중재위원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하여 MOU를 체결한 것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여러 지방 변호사회와 MOU 체결을 확대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있을 때 경기중앙지방변호사님들로 하여금 직접 시청, 도청, 수원 역사 등에서 정기적으로 무료상담을 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고, 상담 후 정말 돈이 없어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무료 변론 서비스도 제공해 왔습니다. 이 외에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지방변호사회에서 독자적인 소송구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법률구조재단(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운영)을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와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지식 서비스이기 때문에 상담이나 변론활동 등을 무조건 무료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절실하게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이 있기 마련이고, 이는 비단 서울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적극적인 확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가칭 '변호사 공선제도(변호사 강제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 권익 향상 및 사회 갈등의 복잡화·다양화로 인해 각종 소송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조계 현장에서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향후 어떠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재판이 아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분쟁의 중국적 해결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재판이 아닌 조정이나 중재 제도가 정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일환으로 아시아 국제중재센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올해 4월경에는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 아시아 국제중재센터가 서울에 마련될 예정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판이 3심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면서도 당사자들은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억울한 심정을 가지며 상대방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하면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과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비용과 시간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의 감정을 어루만져주어 상처받은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다독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 지난 2009년부터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조정·중재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는지요?

몇 해 전, 여당의 실세인 4선 의원 한 분이 정정보도를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모 방송사에서 해당 의원이 법조인 모임에서 특정 종교 편향적인 축사를 한 적이 있다고 보도하였고, 해당 의원은 종교적인 내부모임일 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당시 심리에 참여하였는데 당사자인 해당 의원이 직접 심리에 참석하는 열의를 보이며 진지하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피신청인 측에서도 한 발 양보하여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종교적인 문제가 연관된 민감한 사건이라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랜 시간 당사자들을 설득한 끝에 어렵게 조정이 성립되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 외에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언론분쟁 사건의 조정을 담당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발전하기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조정이나 중재를 담당하는 위원들의 권한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언론조정중재제도가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조정이나 중재 제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정이나 중재를 하면 어떤 점이 좋고 왜 그런 제도가 필요한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면 나중에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중국적이라는 점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원지도 모르고 했는데, 불복하고 싶다'며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조정이나 중재를 성공시키면 단기적으로는 성공률이 늘어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정이나 중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늘어갈 것입니다.

또한, 조정·중재위원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훈련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지식과 사안파악 능력을 기르고, 조정이나 중재기법도 지속적으로 교육받아야 합니다.

●● 변호사로서의 본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활동을 활발

하게 하고 계십니다. 활동량에 비례하여 육체적·정신적 소모도 클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시간관리 비결이 있는지요?

그동안에는 건강을 자신해 왔었기에 술도 많이 먹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뜻하지 않게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특별히 아픈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방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상황의 좋은 점에 집중하고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자 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시간이 나면 독서와 명상 등을 통하여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적게 먹고, 불필요한 술자리는 피하며 무엇보다도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말 그대로 주경야독을 통해 지금은 성공

한 사회인이 되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나 청년실업으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냥 주어진 생활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자, 스스로를 믿자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걸어온 상황과 그들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남의 인생을 함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굳이 한마디 하려면,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나름대로 힘든 삶을 살고 있고,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있거나 게으른 생활을 하면서 상황을 탓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조금 더 부지런하고, 조금 더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 진행 | 손정배 (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최은진 (홍보팀 차장보)

위원동정

COMMISSIO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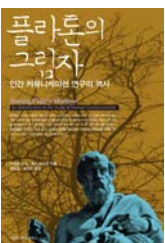
법원인사, 중재부장 4인 인사이동

성명	중재부	전보일자	변동 전	변동 후
장진훈	서울제2중재부	2013.2.25.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성지호	서울제3중재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임병렬	서울제4중재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최복규	서울제5중재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중재위원 사퇴

구분	소속	성명	변동사항	사퇴 일자
법관인사	서울제7중재부	배준현	특허법원 부장판사	2013.2.14.
	경기중재부	장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3.2.25.
	강원중재부	김형훈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2013.2.25.
	제주중재부	오현규	서울고법 판사	2013.2.25.
위원사퇴	광주중재부	박남기	개인적인 사유	2013.2.15.
	서울제1중재부	장재윤	개인적인 사유	2013.2.28.

‘플라톤의 그림자’ 번역, 출간



박경우 위원(부산중재부, 동아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플라톤의 그림자, 인간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역사」를 공동 번역, 출간했다. 이 책은 커뮤니케이션학에 대한 입문서로 커뮤니케이션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역사적인 흐름과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이사장 선임



장익현 위원(대구중재부, 변호사)이 2월 5일 대구뮤지컬페스티벌 제3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은 2007년부터 매년 6~7월에 개최되며, 장 위원은 2013년 2월 5일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이사장으로 임기를 수행한다.

‘여론(Public Opinion)’ 번역, 출간



이동근 전 위원(2008 ~ 2011년 광주중재부 중재위원 재임,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월터 리프먼이 쓴 언론학의 고전 「여론(Public Opinion)」을 번역, 출간했다. 이 전 위원은 올해 2월부터 머레이 주립대학교(미국 캔터키 주 소재)에서 조선대학교 여학연수생 지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세기의 명저로 평가되는 이 책으로 저자 월터 리프먼은 플라처상을 수상한 바 있다.

NEWS

〈설득 및 수사 기법 월차보고서〉 창간호 발간



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설득 및 수사기법에 관한 연구 성과를 담은 월차보고서 창간호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의 자료 - Persuasion & Rhetoric Report」를 발간했다. 위원회는 조정기법의 향상에 필요한 설득 및 수사기법에 관한 자료를 선별, 정리하여 매월 월차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발족



위원회는 4월 24일 실시되는 2013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의 선거기사심의의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설치했다. 선심위는 2월 25일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

하고 위원장에 박기동 위원, 부위원장에 제정임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선심위는 2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운영되며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형평성·객관성 여부를 심의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정 개선 소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선거기사심의 관련 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 7인의 위원(박기동, 박석태, 권문한, 유익선, 임병렬, 이준

웅, 조우성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1월 28일부터 2월 23일까지 설치되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선심위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논의결과는 향후 설치되는 차기 선심위 운영 시 반영될 예정이다.

겨울방학 중 · 고등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종료



겨울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3일 까지 총 13회에 걸쳐 진행된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서울 및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의 87개 학교에서 238명이 참여했다. 위원회 인턴십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확대·운영될 예정이며, 여름방학 프로그램 일정은 7월 중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위원회 사회공헌단, 창인원에 생필품 기증



위원회 사회공헌단은 지난 2월 8일 설을 맞이하여 장애인 보호시설인 창인원(경기도 양평 소재)을 방문해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한 생필품을 기증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월 사회공헌단을 출범하여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매월 임직원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한 후 활동재원으로 삼고 있다. 한편, 이날 기증식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오광건 사무총장을 비롯한 위원회 사회공헌단원 및 사회복지법인 창인원 이경학 대표이사, 창인재활원 이용근 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 좌측에서 세 번째 창인원 이경학 대표이사, 네 번째 오광건 사무총장)

2013년 계간 「언론중재」 해외통신원 선발

위원회는 2013년 계간지 「언론중재」 해외통신원으로 온기홍 씨(중국 베이징대학 신문방송학원 박사과정)를 선발했다. 올해 해외통신원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복잡·다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미디어 이슈를 전하기 위해 해당 지역 전문가를 선발하였으며, 해외통신원으로 선발된 온 씨는 중국의 언론법제동향 및 언론피해구제 자료 등을 수집하여 계간지에 소개할 예정이다.

새 희망을 꿈꾸며...



조정신청인

저는 뜻하지 않는 사정으로 임신한 어린 엄마들이 따뜻한 울타리에서 잠시 쉬다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기관의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기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신체적·심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학업 및 직업의 중단,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의 변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 기관은 이들 어린 엄마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그 후에는 사회에 재적응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 사회복지사로서 어린 엄마와 아기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고,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 미혼모들과 함께 웃고 울며 보낸 세월이 허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때부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날까지의 시간은 저에게 암흑과도 같았습니다.

한 언론사가 10대 미혼모(A양)의 아버지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보호했다는 이유로 우리 기관이 마치 불법을 행한 것처럼 연달아 기사화하였고, 주변으로부터는 부도덕한 일을 하는 기관으로 오해받는 상황이었습니다.

A양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소년원의 보호를 받게 되면서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딸이 임신했다는 것과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관은 A양의 보호자로 알았던 A양의 할머니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했으나, A양의 아버지는 보호자에게 연락도 취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미혼모시설에 입소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기관이 A양에게 입양을 중용하였고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언론사에 제보하여 7건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A양의 아버지는 관공서 민원제기와 더불어 경찰과 검찰청에 제가 속해 있는 기관 및 직장인 저와 직원을 고소하였습니다. 언론사 기자는 구청을 비롯한 기관에 정보공개요청 등을 하였고 두 달 사이에 우리 기관을 상대로 계속해서 기사를 내보내며 끝없는 공격과 비난을 하는 통에 더 이상 당해낼 힘조차 없이 지쳐만 갔습니다. 7개의 기사가 연달아 나가는 동안, 저는 전쟁 같은 5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새벽녘까지 잠을 이룰 수 없어 하얗게 지새는 나날이 많았습니다. 내가 지금껏 해 온 일들이 과연 이렇게 의미 없는 일들이

었나 싶어 절망적인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는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신청가능 날짜를 며칠남겨두고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기일이 다가올수록 초조하고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조정심리가 열리는 날 아침부터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도착하여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도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지만 드디어 중재위원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제 입장을 얘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 제가 준비한 자료를 참고하며 사건내용 등을 차근차근 정리하여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목이 메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만 같아 정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긴 심리 끝에 비로소 기사를 삭제한다는 조정합의서를 작성한 후에야 저는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과연 나 혼자였다면 언론사를 상대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의문입니다. 아마도 부당함을 토로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정을 하려 노력하시는 중재위원들과 조사관계 이 글을 빌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조정을 신청하기까지 많은 도움이 되어주셨던 언론중재위원회 지역 소장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저를 도와주는 파스한 손길에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손길을 어린 엄마들에게 뻗어 비록 아프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새 생명을 품은 한 아이의 엄마로서 마음을 다잡고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곁에서 도움을 준다면, 지금의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리라 확신합니다.

* 편집자 주 : 필자의 요청으로 성명 및 기관명 등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독이 든 열매를 약으로 쓰는 법



양재규
기획팀 팀장, 변호사

미드(미국드라마) 폐인들 사이에서 명작으로 통하는 <더 와이어>는 미국 내에서도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한 볼티모어의 마약반 경찰들을 다룬다. 제목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경찰들은 마약범을 잡기 위해 상시 도청을 한다. 적법절차? 안중에도 없다. 일단 도청부터 하고 본다. 드라마 속 경찰들은 꽤 실력 있어 보이지만 도청이 아니면 마약수사는 어렵도 없어 보인다.

도청은 세상 어디에서나 행해지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래도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은 볼티모어 마약반 경찰들처럼 일단 하고 볼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떨까? 다음 사례에 비춰볼 때 크게 다를 것도 없는 듯하다.

사건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2월에는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대선을 앞두고 분주한 곳은 정치권만이 아니었다. 같은 해 4월과 9월, 그리고 10월 당시 삼성그룹 회장비서실장과 중앙일보 사장은 서울시내 한 호텔 식당에서 만나 여야 대선후보에 대한 삼성그룹 측의 정치자금 지원 문제, 정치인과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이른바 ‘추석 떡값’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 그로부터 8년 뒤인 2005년 여름, 이 은밀한 대화가 세상에 공개된다. 1997년 당시의 대화가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도청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흔히 ‘안기부 X파일’이라 부르는 사건이다.

‘안기부 X파일’을 세상에 알린 것은 언론과 한 정치인이었다. 특히, 정치인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검사들의 실명을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지난 2월 14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정치인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서는 ‘도둑 잡으라고 소리쳤더니 도둑은 안 잡고 소리친 사람만 잡는다’며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삼성의 승리’ 내지는 ‘검찰의 승리’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불온한 대화를 나눈 삼성이나 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검찰에서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대신, 문제를 제기한 쪽은 처벌받았다. 결과적으로 강자는 무사했으나 약자는 다쳤다. 이런 대결구도의 관점으로부터 보면 이번 사건은 힘의 논리가 작용한, 썩 정의롭지 못한 결과인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이 터진 후 세간의 관심은 온통 삼성과 검찰에만 쏠렸다. 삼성이 돈으로 정계와 검찰을 관리하는지, ‘떡값 검사’는 정말 돈을 받았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대다수 논의가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논의는 지속되고 있지만 사건의 진실이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 문제는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도청사실이라고 본다. 도청이 아니었다면 영영 알려지지 않았을 불온한 모의가 불법적인 도청 덕분에 공개되어 공공의 이익이 달성되었을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불법이며 또 다른 측면에서 치명적인 독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미 2011년 3월 17일 유사한 사안(2006도8839)에서 유죄를 선고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위 피고인이나 문화방송은 … 그 대화의 주요 내용을 비실명 요약 보도하는 것만으로도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녹음 사실 및 제재와 언론, 정치권 등의 유착관계를 고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 당사자 등의 실명과 대화의 상세한 내용까지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그 수단이 나 방법의 상당성을 일탈하였다”(2006도8839)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불법도청과 더불어 그로 인해 알게 된 대화 내용의 공개 또한 처벌하고 있다. 취지는 불법도청을 원천봉쇄하고자 함이다. 불법도청이라는 독나무 외에도 거기에 달린 열매까지 금지시키지 않으면 독의 확산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나무라도 때로는 쓸 만한 열매가 달릴 수 있다. 독을 제거하거나 독성을 약화시키기만 하면 약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가만 살펴보면, 불법도청이라는 독나무에 약이 될 만한 열매가 달린 형국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약으로 쓸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대법원은 비실명 요약보도를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왜 MBC가 비실명 요약보도에 그치지 않고 실명 및 대화 내용의 상세한 공개로까지 나아갔는지 지적하고 있다.

만일 MBC가 ‘안기부 X파일’ 사건 보도 당시 도청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지 않고 비실명 요약 보도 형식으로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이다.

‘안기부 X파일’을 세상에 알린 사람들은 병든 세상을 고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약을 쓰는 데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앞으로 또 비슷한 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찌거나, 말리거나, 달이는 등 가공해서 써야 하지 않을까 싶다.



로댕의 ‘느린 예감’을 만든 산책의 힘

최효찬
칼럼니스트



“명성을 얻기 전 로댕은 고독했다. 그리고 나서 찾아온 명성은 아마도 그를 더 고독하게 했을 것이다. 명성이란 결국 하나의 새로운 이름 주위로 몰려드는 모든 오해의 총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쓴 ‘릴케의 로댕’이라는 책은 이렇게 시작한다. 시샘이 날 정도의 명문이다. 당시 무명작가에 불과했던 릴케가 로댕을 만난 것은 로댕의 전기 집필을 의뢰받고서다. 그 후 비서로 지내기도 하면서 릴케는 로댕의 전기를 완성했다. 릴케의 로댕 전기는 전기라기보다도 릴케의 눈으로 본 로댕의 예술론에 가깝다. 그의 개인사라든가 예술사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다보면 로댕이 예술가로서 영감과 창작 혼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은 이른 아침마다 먼 길을 돌아오는 산책과 그 산책을 하면서 느낀 ‘관조의 힘’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로댕은 ‘일이 곧 휴식’이었다. 그렇지만 단 하나의 휴식은 아침 산책이었다고 릴케는 묘사한다. “그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이른 시간의 순수함을 사랑합니다. 그는 길가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는 황홀한 표정으로 버섯 한 송이를 들어올려서, 이른 아침의 산보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온 아내에게 보여줍니다.”

산책을 하면서 길을 지나칠 때마다 로댕의 시선에는 다양한 사물들이 들어온다. 시골풍경을 만나고 밭을 가는 네 마리 소들이 천천히 끄는 육중한 움직임의 우치를 본다. 로댕은 이 느낌을, 느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 충만함을 경탄하곤 했다. 그 움직임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포착한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작업에 반영된다. 그의 작업도 육중한 마차처럼 느낌 속에서 몰두하는 것이다.

로댕은 31살에 벨기에로 가 조수로 일하는데 이때부터 그의 산책은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가 무명의 벨기에 시절에 작업에 몰두하고 기초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산책과 그 산책이 준 관조의 선물이었다고 한다. 로댕에게 무명의 벨기에 시절은 그래서 ‘관조의 시절’이 되었는데 로댕은 그때가 가장 풍요로웠다고 한다. 로댕은 무명의 시절에 산책하며 고갈되지 않은 생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릴케는 “그는 지금도 매번 강해지고 일할 의욕으로 가득

차서 먼 아침산책길로부터 돌아옵니다”며 로댕에게 산책은 예술작업을 하게 하는 힘이라고 적고 있다. “희소식을 가져온 사람처럼 행복하게 그는 자기 사물들 곁으로 가서는 어떤 아름다운 것을 갖고 오기라도 한 것처럼 사물 하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몇 시간 전부터 일하고 있었던 것처럼 다음 순간 곧바로 깊이 몰두하고 맙니다.” 로댕이 부단히 예술가로서 창작열을 불태울 수 있었던 비결도 산책과 산책이 준 관조의 힘이었다고 릴케는 말한다. 로댕에게 산책은 ‘다가올 작업의 준비’였고 모든 의미에서 작업을 위한 전제조건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나중에 건강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시기에 그의 건강이 지속적인 견고함을 얻은 것도 산책 덕분이었다. 즉 로댕은 이른 아침의 산책을 습관화했기에 나중에 산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체력을 유지하며 조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달리 말하면 로댕이 세기적인 예술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산책을 하면서 풍성하고 충만하게 수확한 ‘관조’ 덕분이었다. 사물에 대한 관조는 그에게 수많은 조각상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었을 터이다. 로댕의 조각이 다른 예술가들과 달리 살아 움직이는 듯한 형상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산책을 하면서 자연과 사물과 교감하고 감응한 덕분이었던 것이다. 필자는 릴케의 로댕을 읽으면서 로댕을 관찰하는 릴케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이른 아침 로댕 부부가 산책을 나서면 그 산책길을 따라가는 릴케의 모습이 말이다.

스티브 존슨이 쓴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책에서 이 제목에 대한 답은 ‘독서와 산책’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런데 책보다 더 좋은 것이 산책이라고 한다. 탁월한 아이디어는 ‘느린 예감’으로 얻는데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생각이 아이디어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느린 예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바로 산책일 것이다. 필자 또한 글감과 같은 아이디어를 산책하며 얻곤 한다. 건강을 위해서도 산책만한 게 없다.

로댕처럼 관조의 눈을 키우고자 한다면, 이른 아침의 산책이 답이다. 굳이 이른 아침이 아니어도 좋다. 산책을 하라. 그러면 예감을 키울 수 있다!

소화성 궤양(潰瘍)이란 음식물이 이동하며 소화하는 통로인 식도, 위, 소장, 대장 등의 소화기관에 발생하는 궤양을 말합니다. 위와 십이지장에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을 지칭합니다. 위·십이지장궤양은 전체 국민의 10%는 일생 중에 한 번은 앓을 만큼 흔한 질병입니다. 궤양을 유발하는 흔한 원인으로는 아스피린 등의 소염진통제, 헬리코박터(Helicobacter pylori)균 등이 있으며, 오랜 기간 지속되는 스트레스도 소화성 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성 궤양이라는 용어는 1800년대 당시 저명한 의학자였던 오스트리아의 Rokitansky 교수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지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60~1970년대에 베트남 전쟁 시 부상당한 군인들에게서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터입니다.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소화기계 인자가 관여하지만, 오늘의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위액분비와 자율신경계 조절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액(胃液)은 단백질 분해효소인 펩신과 위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식물에 포함된 각종 세균에 대한 항균작용과 함께 강력한 소화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십이지장은 자신이 분비한 위산이나 펩신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점막을 보호하는 방어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상태일 경우에는 궤양을 일으키는 공격인자와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방어인자가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만일 그렇지 못해 균형이 깨져 공격물질이 강해지거나 방어물질이 약해지면 궤양이 발생하게 됩니다. 방어인자로는 위점액, 위점막 아래층의 풍부한 혈류층(血流層), 프로스타글란딘 E 등이 있습니다.

심장이나 위장 등의 인체의 내부 장기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기능을 수행해야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절하는 것이 자율신경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화효소나 음식물 분해를 위한 위액의 양이 적당하게 분비되고 영양분이 흡수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 신체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내분비계의 중추 기관인 시상하부-뇌하수체를 자극하여서 부신피질자극호르몬유리호르몬(CRH)과 부신피질호르몬(ACTH)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부신(副腎)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코르티솔(cortisol)의 분비가 증가됩니다. 이 호르몬은 위산과 펩신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벽 보호인자인 점액 분비를 감소시키며, 상처를 입은 조직의 회복을 방해하여 소화성 궤양을 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의 흥분도 위조직의 혈관 수축을 유발하여 방어인자인 위점막 아래층의 혈류의 감소를 가져와서 점액 분

비 감소, 펩신 분비 증가, 히스타민 유리 증가를 야기하여 궤양이 발생하게 됩니다.

궤양이 발생되면 명치부분에 찌르는 듯 혹은 쪼아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가벼운 궤양일 때는 음식물이나 제산제로 증상이 호전되지만 심하게 파고든 궤양인 경우에는 음식물이나 제산제로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구역질, 구토가 나며 등까지 통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궤양에서 심한 출혈이 나는 경우에는 혈변으로 검은색 대변을 보거나 혈액 부족으로 인하여 어지러운 증상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식사를 중단하고 신속히 병원에 찾아가서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예방하기 어렵지만 식이요법은 궤양의 치료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급성 출혈이나 위장 천공(穿孔)과 같은 급성기에는 금식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약물치료와 함께 식사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식습관 및 생활습관 교정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많은 현대인들에게 술과 담배는 많은 이에게 피난처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적당량의 알코올은 궤양 발생과는 무관하지만 흡연은 관련이 깊습니다. 우선 흡연은 궤양의 발생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치유도 방해하고 궤양 재발률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을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또한 바쁜 직장인들에게서 짧은 식사시간을 위해 나타나기 쉬운 식습관인 충분히 음식물을 씹지 않고 급하게 삼키는 것도 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맵거나 짠 음식 같이 자극성이 있는 음식물을 피하는 것은 증상이 좋아질 수는 있으나 궤양이 더 잘 치료된다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특정 음식을 먹어서 증상이 나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이나 야채 등의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궤양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고 특히 십이지장궤양에 일부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의 간식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등 카페인을 함유한 음료수는 위산 분비를 항진시키므로 피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권장하던 우유는 치료 효능이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많은 양을 마시면서 제산제와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우유에 함유된 칼슘으로 반동적인 위산 분비 증가나 밀크-알칼리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궤양

위를 다스립시다



남승우
국립중앙의료원
소화기센터장



그러려니

섬세하고 다정한 선배님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깔끔하신 성품대로 실내가 정갈하게 정돈돼 있었는데 책상 위에 작은 액자가 눈에 띄었다. 수많은 책 사이의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것으로 보아 중요한 의미를 지닌 애장품으로 짐작됐다. 그러나 크기가 손바닥 정도로 작는데다 글씨 또한 빼뿔빼뿔하고 투박한 모양이어서 의아했다. 더욱이 ‘그러려니’라는 단 네 글자여서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흔히 볼수 있는 이상이나 목표가 아니라 생소하고 난해한 탓에 이를 풀이하느라 진땀을 뺐다. 심지어 끝자가 ‘니’여서 석가모니 같은 성직자 중 한 분을 존경하고 계신 건가 하는 별의별 생각까지 들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평상시 대수롭지 않게 쓰던 ‘그러려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는 얼굴이 화끈했다.

선배님의 모친은 매사에 ‘그러려니’ 하며 참고 이해하라는 당부를 입에 달고 사셨다고 들려 주셨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가진 것이 부족해도, 화나고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도 ‘그러려니’하라며 다독였다는 것이다. 초근목피의 곤궁하고 남루하던 시절의 가슴앓이와 솟구치는 열정, 그리고 저항이나 불만을 잠재웠던 한마디는 바로 ‘그러려니’였다.

한글도 배우지 않으신 어머니에게 달력 뒷면에다 ‘그러려니’라는 글자를 한동안 익히게 하신 후 그중에서 잘된 글씨를 골랐다는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말씀은 하셔도 쓰지를 못하셨던 어머니를 오래 기억하기 위한 가벼운 마음으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됐다는 것이다. 액자크기보다 큰 울림이고 충격이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만 숙연하고 애잔함의 여운이 남는 30여 년 전의 삽화다.

누구 보다 자존심 세고 꿈이 컸던 선배님으로서 매사 양보하고 참고 이해하고 절제하는 삶을 받아들이기 이전 얼마나 괴로웠겠나, 아버지를 일찍 여의신 후 바보 같은 삶에 대한 회한이나 탈출의 유혹이 어찌 한두 번이었겠나.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사 자족하며 감사하라는 긍정의 가르침이 유언처럼 책상에 앉을 때마다 육성처럼 들린다고 회고하신다. 액자는 어머니가 남기신 훈장인 셈이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빨리 가려다 넘어지고 다치는 것을 안쓰러워 하신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며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게 발을 뻗고 잘수 있음을 강조하신다. 또 혼자 괴로워하고 상처를 받느니 상황을 뒤집을 수 없다면 하루빨리 잊고 노력하는 것이 순리라고 타이르신다. 울화가 치밀어 한마디 하고 참견한다고 마음이 편해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응어리가 남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려니’는 쯤대 없는 자기 합리화나 대충 하라는 것과는 다르다.

어쩌면 오늘날 ‘그러려니’는 멍청하고 어리석은 행태로 매도될지도 모른다. 형편이 어렵다고 도전하지 않고 순응하며 기다리는 것은 바보나 다름없다는 항변에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공연히 손해를 왜 보며 나를 무시하는데 참고만 있느냐는 주장도 나를 이해된다. 또 상대의 피해나 상처보다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지닌다. 의사 표현이 확실하고 속내를 감추지 않는 신세대들로서는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과연 ‘그러려니’의 정신은 고리타분하고 유약한 유산일까. ‘그러려니’는 무조건적인 관용, 인내, 굴종의 다른 표현이 아니다.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절제와 긍정의 가르침을 함축한다. 급한 성격과 가벼운 처신이 더 큰 화를 불러왔던 회한을 수없이 경험하는 우리다. 오판과 실수로 예견되는 이후의 후유증까지 배려한 선택적 삶의 방식이었다. 상대와의 다름과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면 별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려니’는 편견의 대상이 아니라 순기능이 돋보이는 삶의 지혜가 아닌가 싶다. 요즈음 너나없이 힘들고 지친 각박한 세태일수록 ‘그러려니’에 담긴 정신은 시사하는 바 크다.



민경탁 위원
충북중재부



솔지의 추억



윤치경
접수상담팀

노란 감꽃이 떨어지는 5월의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나는 점심 밥상을 앞에 두고 반찬투정에 심술이 나 울음보를 터트렸다. 내가 늘 먹어왔던 김치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오이 무침, 그리고 조선간장에 고춧가루와 깨를 섞은 양념장에 버무린 멸치 반찬이 반찬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보니 친구들이 먹는다는 소시지, 동그랑땡 반찬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이다.

평소 편식이 심하지 않았지만 나의 반찬 투정은 점심도 거른 채 소시지 반찬을 향한 울부짖음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 누구에게도 관심을 끌지 못한 채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며 밥상은 치워져버렸다. 반찬 종류보다 가족의 무관심이 더 서러웠던 나는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했다.

3시간 동안 울며, 훌쩍거리다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중노동에 가깝다. 허기진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기차 화통처럼 크게 들려왔지만 제 발로 밥상 앞으로 기어가기에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나의 굶주림은 점점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갔고, 5월의 감나무 밑에는 감꽃이 하나둘 떨어져 있던 때라 가족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감꽃을 하나씩 집어 먹으며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요즘 시민단체나 정치인들이 단식 투쟁할 때도 최소한의 물과 사탕 정도는 먹는다고 하니, 떨어진 감꽃 정도 집어먹었다 해서 ‘단식투쟁’의 순수성이 훼손되지는 않을 테다.

나의 외로운 투쟁은 윗집에 살던 ‘군저리 이모’(시골에서는 아주머니의 고향을 따 호칭을 붙였기 때문에 그 이모님은 아마도 군저리라는 지역이 고향이었을 것이다. 내 어머니는 아직도 ‘영남댁’이라고 불리신다) 덕분에 다행히 끝이 났다. ‘군저리 이모’께서 “어이, 영남댁, 애를 이렇게 굶기면 되겠어!”라며 내 편이 되어주셨고, 나는 더 버틸 힘도 없었거니와 ‘군저리 이모’의 간곡한 요청에 못이긴 척 밥상에 앉았는데, 그때 밥상에 올라온 반찬이 ‘솔지’였다(표준어로는 ‘부추김치’, 경상도 말로는 ‘정구지’라고 불린다).

‘아~ 이런 환상적인 맛이 있을 수 있나?!’

나는 자존심도 내던진 채 ‘솔지’에 밥 한 그릇을 푹딱 비웠다. 고춧가루와 간장을 섞어 만든 매콤 짭조름(?)한 양념에 버무려져, 살짝 숨이 죽으면서 부드러워진 부추를 흰 쌀밥에 얹어 먹다 보니 동그랑땡, 소시지는 도시의 희열건 아이들이나 먹는 인스턴트에 불과한 것들로 치부되었다. 거기에 부추가 풍기는 봄내음까지 더해져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어머니가 담그신 ‘솔지’에 매료된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은 어머니의 ‘솔지’맛을 본 후 당신이 싸온 ‘제육볶음’과 매번 바꿔 먹자고 할 정도였다. 날마다 ‘풀 반찬’만 싸오는 내가 안쓰러웠기 때문은 아니었을 테다.

나의 단식투쟁 이후, 부추가 재배되는 봄부터 가을까지 ‘솔지’를 비롯한 부추 반찬은 나의 애호 반찬이 되었고, 20년이 지난 요즘도 회사 근처 식당에서 부추 반찬이 나올 때면 어릴 적 추억이 떠올라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곤 한다.

최근 들어 식자재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부추가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인 열성 채소로 간과 신장에 좋아 ‘간의 채소’로 불리기도 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몸이 찬 사람에게도 좋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어릴 적 내 입맛이 선견지명을 갖췄다고 자화자찬해도 되지 않을까.

참고로 부추의 어원에 대한 여러 설(說) 중에 ‘부뚜막에 심어 먹는 채소’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이 참 오묘하고 의미심장하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검색해 보시기를 바란다.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사례 |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 초상권 침해

A 방송사는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와 관련한 뉴스를 보도하며 보도내용과는 무관한 신청인들(모 모델하우스 분양 팀장 및 직원 등 9인)이 분양 상담을 하고 있는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보도했다. 신청인들은 기획부동산 사기 관련 보도내용과 본인들은 아무 연관이 없음에도 보도로 인해 사기범으로 매도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해당 중재부는 시청자들이 신청인들을 기획부동산 사기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정정보도 게재 및 신청인들 중 4인에 대해 18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명예훼손 사례 | 단정적인 범죄사실 보도에 대해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B 방송사는 2011년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C씨(신청인)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 부패한 경찰이며 이로 인해 해임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지난해 말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해당 중재부는 보도내용에서 신청인의 성씨, 소속과 직위를 언급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범죄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신청인이 피해를 입은 점을 인정하여 추후보도 게재 및 7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을 설득,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이 건과 관련하여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 케이블TV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도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현승 _ 인터뷰 코너로 책장을 넘기는 순간 원우현 교수님의 해맑은 미소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살아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나눔입니다”라는 기사인데요, 글을 읽고 나선 원우현 교수님은 미소만큼이나 참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미디어 주권의 주인으로서 잘못된 미디어가 생성하는 정보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뿐더러 그러한 정보들을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습득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보를 받기만 하는 피동적 소비자이기보다는 정보에 취약한 정보 빈자 편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들과 함께 노력하여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힘써야 하지 않나 싶는데요, 원우현 교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모교와 나눔활동으로 언론인으로서 몸소 실천하고 계신다고 하니 정말 존경스럽고 멋지십니다. 저 또한 미디어를 이용하는 미디어 주권의 주인으로서 잘못된 정보들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정보교류에 힘써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니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신승남 _ 비록 부피가 작은 책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중량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알차고 유익한 기사가 많았습니다. 이렇듯 언론중재 위원회의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 방식을 적절하게 대변해 주는 고품격 책자 [언론  사람]은 독자들에게 호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학교폭력보도의 문제점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주요 쟁점논의” 기사는 학생을 가진 학부모들에게 꽤나 유익한 정보거리를 제공한 시사성 넘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법 분야에서 탁월하고 지대한 역할을 했던 원우현 고려대 명예교수를 재조명함으로써 새삼 그의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 ‘신 동의보감’과 ‘이용재의 잡문노트’ 같은 코너 등도 꼼꼼히 정독했습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하고 중재하는 사례를 좀 더 사실적이고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십시오. 날로 발전되어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하 _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는데, [언론  사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네요. 언론 보도로 인한 오프나 선의의 피해를 조율하고 풀어주는 화해의 장이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좋은 일을 하는 곳이 언론중재위원회네요. 보도의 다양성에 비추어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도 있어서는 안 되기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여겨지네요. [언론  사람] 2월호 기사 중에 “나의 언론분쟁 경험+신참 변호사에게 비친 언중위”를 특히 관심 있게 읽어 보았습니다. 언론 소송건과 언중위 조정사건을 담당하면서 느낀점이 생생하게 잘 소개되어 있어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례토크-저속한 표현? ‘닥치고’”는 TV 시트콤의 제목에 얹힌 내용에 대해 문제가 되었던 내용이었는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언론  사람]에서 계속 언론과 관련된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을 많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정중재도 인터넷으로, 언론중재Eye-Net 서비스!!

언론중재Eye-Net 이란?

- 언론중재Eye-Net은 전자적으로 조정중재를 신청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전산정보시스템입니다.
-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상담, 조정중재신청, 심리준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론중재Eye-Net을 찾아주세요.

언론중재Eye-Net 이용안내

1. 전자제출 _ 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 중 각종 서류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민원 _ 묻고 답하기와 1:1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각종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송달 확인 _ 위원회에서 전자송달한 각종 통지서, 조정조서, 결정문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나의 전자심리 _ 나의 사건 진행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고, 진행 중 사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Eye-Net <http://people.pac.or.kr>

언론중재
Eye-Net 서비스



언론중재위원회의 교육프로그램이 확대되었습니다

ADR 교육과정 및 언론피해 예방·구제 교육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DR 전문 교육과정

현직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조정중재 실무, 설득·협상 커뮤니케이션, 언론대응기법 등에 관한 실질적인 분쟁해결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언론 피해 예방 및 구제 교육

언론피해구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은 조정·중재사례 및 법원판례 등 언론보도 피해 및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조정·중재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상 |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기업, 언론인, 대학(원)생 등

| 비용 | 무료

| 문의 | ADR 전문 교육과정 ☎02)397-3092~4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 교육 ☎02)397-3062~4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온라인상담 <http://people.pac.or.kr>

•선거기사심의위원회 TEL 02)397-3151~4 FAX 02)397-3089

■ 이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